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2007년도 표어** ⊕
교회여 진리의 빛으로 다시 서라
-민족을 깨우는 우리교회 (사 51:17, 롬 13:11)

⊕ **행동지침** ⊕

1. 세계 복음화
2. 교회 천국화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II)

(시편 60:1-12)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악한 세상을 정복하고 이겨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 군대를 거의 진멸시킬 무렵, 전에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살던 에돔 사람들이 다시 한 번 선전 포고를 합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또 다른 문제가 고개를 들고 나옵니다. 결국 이 문제도 해결이 났지만 다윗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백성들이 숲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혼돈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며 절망하고 또 절망했습니다.

1. 다윗의 애소와 하나님의 응답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5절).

다윗은 에돔인들의 공격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애소했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인접한 나라들도 통치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6-8절). 속곳과 길르앗과 므낫세는 요단강 동쪽에, 세겜과 에브라임과 유다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으로 가나안 전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전역을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거룩한 성소(sanctuary)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미 다윗에게 주어졌으므로 이제는 그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8절).

목욕통이란 모압을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겠다는 것이고, 에돔에 신발을 던지리라는 것은 정복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이스라엘의 임금에 대해 환호성을 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 모든 나라를 이스라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건고한 성’, 곧 에돔에 입성하는 날 뿐입니다(9절).

6-8절의 말씀은 5절에 표현된 신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를 찾습니다. 성경적 신앙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같이 낙천주의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적극적인 사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적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적 태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약속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물리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압을 엄곡으로 급파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방의 빛을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복음을 더 많이, 더 열심히 전해야 할 것

니다.

2. 교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책하시려고 잠시 에돔으로 인해 고통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실 것으로 믿고 애소하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고난은 성도에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1)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실 수 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11절).

에돔에는 견고한 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견고한 성이야말로 에돔 사람들의 힘이자 자랑이었습니다. 그 성에는 함부로 접근할 수도 없을 만큼 난공불락의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이 같은 에돔의 점령은 아무리 훈련된 군대를 투입해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2)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이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다”(12절).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을 확실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은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에돔의 요새처럼 난공불락의 성을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다윗은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시편 60편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을 믿음의 손으로 붙잡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왕도 아니고 전쟁터에서 원수의 침략을 받은 군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악한 세상을 정복하고 이겨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다윗의 힘 때문도, 지략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10절).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약 4:2-3).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바로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기도로 준비되고 있는 2007년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이번주>

- 사랑부: 7월14일(토) ~ 15일(주) - 서울 숲, 서울교회
- 대학부: 7월18일(수) ~ 21일(토) - 철원 수도 수양관
- 신혼가정부: 7월20일(금) ~ 21일(토) - 다윗동산

2007년 여름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육부서들의 발걸음이 연일 교회로 이어지고 있다.

2-3일의 짧은 수련회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경공부와 기도회로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사들과 임원들은 부서별로 정한 날에 모여 금식기도로 혹은 릴레이 기도로 준비에 여념이 없다.

유치부(부장 최양진 집사)는 7월 9일부터 21일까지 2주 동안 교사들이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릴레이 기도로 준비 중이며, 아이들이 학원과 유치원보다 성경학교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150명 출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년부(부장 최광성 집사)는 7월 11일과 18일 수요일 2부 예배 후에 두 차례에 걸쳐 전체 교사 기도회를 가지며, 7월 1일부터 25일까지 교사금식기도회를 통해 은혜롭고 즐거운 성경학교가 진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초등부(부장 서문석 장로)는 모든 교사들이 12일(목) 인근의 기도원으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었다.

중등부(부장 윤봉준 장로)는 이미 6월말부터 매주 수요일 2부 예배 후에 교사기도모임을 통해 은혜로운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다.

고등부(부장 최차순 집사)는 교사와 학생회 임원

이 이미 오래 전부터 여름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모임을 가져왔으며,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전체 교사·임원 릴레이 금식기도를 통해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대학부(부장: 노문환 장로)는 교사들과 임원들이 주일집회, 토요일집회, 교사기도회 및 릴레이 금식기도를 통하여 여름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다.

디아스포라부(부장: 양춘경 집사) 교사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기도모임을 갖으며 여름수련회 준비에 임하고 있다. 교사들은 특히 디아스포라부원들이 북한을 탈출한 이들로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나도록 기도하고 있다.

한편 금주 중에는 **사랑부 여름성경학교**가 '하나님 주신 약속을 지켜요'를 주제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열리고 **대학부 여름수련회**가 18일(수)부터 21일(토)까지 3박4일 동안 **철원 수도 수양관**에서 '기도-열방을 깨우는 대학부'를 주제로, **신혼가정부가 20일(금)-21일(토)까지 다윗동산**에서 Home of Bible을 주제로 각각 열린다.

여름성경학교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은혜 받고 주님과 만나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도록 한다.

서울교회 홈페이지 개편 가동

8월부터 주일예배 인터넷 생방송 예정

그 동안 멀티미디어단을 중심으로 계속되어 오던 서울교회 홈페이지(www.seoulchurch.or.kr)의 개편작업이 완료되어 지난 7일(토)부터 다시 가동되고 있다.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는 지난 번 보다 더욱 다양하고 알찬 내용으로 준비되었으며 특히 오는 8월 첫 주부터는 주일예배를 인터넷으로 생방송할 예정으

로 준비에 한창이다.

앞으로 인터넷 선교의 중심으로 서는 서울교회 홈페이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그 동안 기도로 함께해주신 성도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성경통독새벽기도회 금주 순서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날짜	7/16	7/17	7/18	7/19	7/20	7/21	7/22
성경범위	대하 31-33	사 4-5	느 4-12	느 13-15	출 2-15	출 16-31	출 32-34
담당 교역자	윤영국 한상은 서명철	이규정 윤영국 한상은	서명철 이규정 장석남	이태훈 장석남 윤영국	한상은 정수길 장석남	장석남 이태훈 정수길	윤영국 한상은 서명철

7월 성경통독 시상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7월 중에 성경을 통독한 성도들을 시상하는 시간을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갖는다. 성경을 통독한 이들은 본당 2층에 준비된 좌석에 앉기 바라며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 5층에 게시된 한반도 지도에 본인의 사진을 붙일 수 있도록 기도한다.

한편 이번 성경통독에는 2003년부터 영어성경(NIV)을 필사한 분이 있어 더욱 성도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3교구 김명옥 권사는 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바쁜 중에도 틈틈이 성경을 필사하여 이번에 완료한 것이다.

<성경통독자 명단>

- 6독 (12교구) 김경철 장로
- 5독 (11교구) 김하니 선생
- 4독 (8교구) 김인식 권사
- 3독 (2교구) 이응선 장로 (3교구) 김정순 권사
- 2독 (1교구) 박상희 집사 (3교구) 이순례 권사 (4교구) 광정임 성도 (8교구) 한정석 권사 (7교구) 정연택 권사 (12교구) 김인순 권사 이동수 장로 (13교구) 문금희 성도
- 1독
 - (1교구) 국산옥 권사 신계순 집사 옥희숙 집사 윤만현 집사 이경화 집사 이은희 권사 임영숙 집사 장인원 집사
 - (2교구) 방계운 권사 박순봉 권사 신금전 집사 정유선 권사
 - (3교구) 김경진 집사 김점숙 집사 박경희 권사 이해경 집사 정병무 장로 현승희 성도
 - (4교구) 김명은 성도 김혜경 권사 이자혁 권사 이종을 집사 정창빈 집사 최차순 집사
 - (5교구) 김순인 집사 안준홍 집사
 - (6교구) 노정숙 집사 설치환 집사 윤숙희 권사
 - (7교구) 공진문 권사 김영준 장로 한성옥 권사
 - (8교구) 송갑순 권사 이봉선 권사 한정원 권사
 - (9교구) 김명화 권사 김병호 집사 김현주 집사 이부자 권사 이은유 성도 조명녀 권사 황노전 권사
 - (10교구) 김경희 권사 윤찬오 장로 조성업 집사 홍재식 권사
 - (11교구) 김해수 집사 조정옥 권사
 - (12교구) 고후덕 권사 김진달 집사 박상운 집사 오형철 집사 정희순 권사 최광성 집사
 - (13교구) 박경정 집사 윤영국 목사 윤태욱 집사 이순희 권사 조동완 집사 함언호 권사
 - (14교구) 유성임 집사 황현진 집사

<일반>-2007년 이전부터 성경통독 시작-

- 영어성경필사(2006년 이전)
 - (3교구) 김명옥 권사
 - 1독 (10교구) 김규성 집사

금주의 성구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با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6-7)

Because you are sons, God sent the Spirit of his Son into our hearts, the Spirit who calls out, "Abba, Father." (Galatians 4:6-7 [NIV])

제헌절 특집

“기도로 세워진 우리나라”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 중앙청 회의실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5.10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헌국회의원 19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헌국회 개원식이 열렸다.

이승만 박사는 당시 임시 의장이었는데, 그는 단상에 올라가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 독립 민주국회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윤영 의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바랍니다." 감리교 목사 이윤영 의원은 단상으로 나와 이렇게 기도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지...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로 올리나이다..."

민족사에 길이 남을 소중한 순간, 이들의 신앙고백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는 '기도로 시작한 국회'가 되었고, 이 사건은 이 나라가 기도로 세워졌음을 상징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제헌국회는 곧바로 헌법 제정작업에 착수해 헌법기초위원회 30명과 전문위원 10명 선출을 결의했는데, 이윤영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은 헌법기초위원회는 약 한달간의 작업 끝에 7월 12일 헌법을 통과시켰고 7월 17일 이 헌법

이 공포됐다.

제헌절은 이렇게 기도로 시작한 제헌의회가 처음으로 제정한 최초의 헌법을 공포한 날인 것이다.

제헌의원 가운데는 이윤영 의원 말고도 오택관, 이남규, 오석주 등이 목회자 출신이었고, 이승만과 김동원, 김상돈, 강영욱, 윤치영, 황두연, 서용길, 윤재근, 홍성하, 정준 등이 평신도 기독교인이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기도로 시작한 국회'가 되었고, 이 사건은 이 나라가 기도로 세워졌음을 상징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

여준 신앙의 모습은 지금까지도 국회조찬기도회와 국가지관 기도회 등을 통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제헌절엔 우리 교회 이종윤 목사가 이 모임을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다. 복음이 크게 확장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사는 신앙인들은 이렇게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기도로 헌법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끊임없는 기도와 복음전파의 기도용사가 되기를 기도한다.

당시 전체 의원 198명 가운데 기독교인은 50여명 정도였던 것으로 역사가들은 파악하고 있다.

당시 이들이 보

다. 당시 이들이 보

다. 당시 이들이 보

김민철(편집부)

바라보면서



김소진(12교구)

하루를 천 년 같이 여기며
내 작은 초록 숲 정원에서
당신께 드릴 바구니를
정성을 다해 엮었지요.

모질고 험한 인고의 세월을 견디며
풀었다 멈추고
멈췄다 만들며
저 하늘의 멀고 먼 곳을 바라보면서

당신께 드릴 최상의 선물은
사랑, 운유, 겸손, 양선, 충성..

수많은 봄들이
꽃을 피웠다 떨구고 갔지마는

무성한 가지에는
먼지와 오만, 아집과 위선만 주렁 주렁

차마
바구니에 담을 수 없어
부끄러울 뿐
쏟아버릴 용기조차 내겐 없습니다.

천국시민 양성-신설부서 소개

예배는 사랑하는 아기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이애순 권사(영아부 부장)

아기의 영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으므로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영아부(403호)가 신설되었습니다. 통유리를 통해 안이 들여다보이는 이곳에 새 침대, 아기 엉덩이가 쏘옥 들어가는 새 아기 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엄마와 아기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아부 실입니다.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갓난아기로부터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돌쟁이 아기들이 이곳에서 엄마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엄마에게 안겨서, 업혀서, 젖을 물고, 침대에 누워, 의자에 앉아서, 때론 울면서 엄마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바르게 앉아 두 손을 꼭 모으고 정숙하게 드러지는 예배는 아니지만 아기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되어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영아부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지금

20여 가정의 아기와 엄마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도에는 박금실 전도사, 부감에는 박창희 권사, 그리고 우리교회 부목사 사모 전원이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들은 엄마와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배웁니다.

영아부에서부터 예배를 드린 아기들이 이 나라와 교회에 크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일까요?

이 복된 영아부에 아기와 엄마들을 초대합니다.

영아부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11시 20분, 오후 2시에
403호실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 안과

유행성 안과질환 예방

노제현 집사(1교구)

장마와 함께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즈음 유행성 각결막염으로 인해 안과를 찾는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 질환의 원인은 아데노 바이러스이며 잠복기는 5일 정도로 보통 한쪽 눈이 충혈 되고, 눈곱이 많이 끼며 동통을 수반하는 눈물이 며칠 동안 심하게 발진합니다.

치료는 2차적 세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광범위 항생제와 항염증 안약을 투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복약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유행성각결막염은 접촉에 의해 전염되며 전염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격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예방은 의외로 간단하여 이 안질이 유행할 때에는 외출 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눈을 함부로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이 병에 이환 되면 환자는 수건을 따로 사용

하고, 눈을 만지거나 안약을 넣은 후 반드시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의 손잡이, 책상, 탁자, 컴퓨터 자판 등은 세정제로 자주 닦아 다른 가족으로 전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 유행성 각결막염과 유사한 눈병으로 소위 '아폴로 눈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엔테로바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며 유행성 각결막염 보다는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2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5-7일 정도 발진합니다.

갑작스런 충혈 및 안통과 함께 결막출혈이 심하며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는 것이 특징이나 증상은 그리 오래 가지 않고 후유증이 거의 남지 않아 유행성 각결막염에 비해 덜 위험합니다. 그러나 전염력은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방에 약간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안질 없는 건강한 여름을 나실 수 있습니다.

편지왔어요 - vision 2020운동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안녕하세요?

저는 17사단 군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병 이선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작은 선물을 받게 되어 정말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례를 받은 것은 훈련병 시절 충성교회에서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단 것에 굶주려 있었기 때문이지만 결국에는 미약했던 신앙심을 회복하고 지금은 군종병으로서 영사장 풍곡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인근 교회의 목사님께서 매주 찾아주셔서 지도를 받고 수련을 쌓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소서'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면 모를지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야 한다는 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선물을 받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비전 2020운동이 수 많은 전우 형제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선민 드림



특별찬양

-영재들이 드리는 찬양(1)-

오늘 찬양예배는 박찬호(21. Violin), 박찬민(17. Piano) 형제들이 기악으로 드리는 찬양 예배로 드러진다. 박찬호 군은 서울예고 1학년을 마치고 월반 하여 국립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영재로 입학한 후 3학년 때에 미국 Curtis 음악원으로 진학하였다. 중앙 콩쿠르에서 1등을, 부산 콩쿠르에서 대상을 차지하였다. 동생 찬민 군은 서울 예고 2학년에 재학 중 국립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예비학교의 지휘과 영재로 입학하였으며 음악춘추 콩쿠르, 음악저널 및 한국일보 콩쿠르에 입상한 재원이다. 이들은 우리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팀파니스트 박광서 교수의 자녀들이다.

오늘 저녁에는 Tomas Antonio Vitali (1663-1745) 의 Chaconne 와 두개의 성곡에 의한 변주곡으로 찬양을 드린다.

음악감독 실에서는 앞으로도 우리교회에 속해 있는 영재들을 통한 찬양예배 프로그램을 시리즈별로 지속할 예정이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7일(화) - 18일(수) 고신 교단 지도자(목사, 장로) 영적 대각성 성회를 인도한다. 19일(목) 북한구원운동 공동회장단, 20일(금) 기독교 문화 진흥원 이사회를 각각 소집한다.
- 특남 : 6교구 김일랑, 신민숙 성도 가정
10교구 최승순 김선영 성도 가정
- 특녀 : 12교구 이일영 집사, 이선아 집사 가정
- 확장이전 : 박찬성 집사(1교구) 이크레디블(eCredibile Co. Ltd.) 구로동 197-5 삼성IT밸리 8F T. 711-4116
- 교역자 하기휴가 : 지혜영 전도사(7/26-21)
대행 : 한상은 목사(010-5490-1093)
- 주간식당봉사 : 바울선교회(7.15) 엘리야선교회(7.22)
- 금주의 식사 : 최영일 집사 오영하 집사 가정
김양숙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 예배 및 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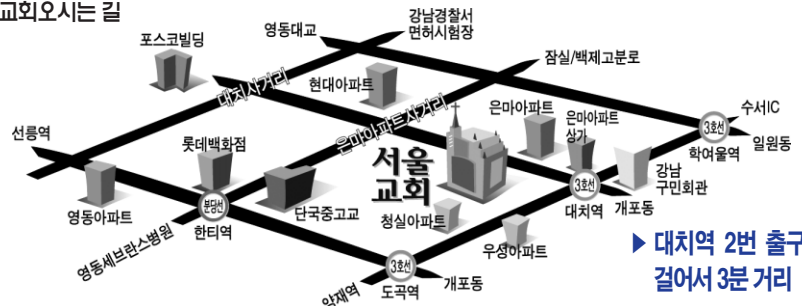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2. 성경 일천독 대장정과 100만인 전도운동 성취되도록
3. 무더위에 온 교회 성도들 영 · 육간에 건강하도록
4.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국가, 사회 되도록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